

생명윤리 특강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2 

이상원

연재 순서

I. 세계관과 생명윤리

II. 세계관과 생명의 시작점

III. 세계관과 생명의 종결점

유물론, 현대인을 장악한 강력한 이념

현대인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관의 유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념은 유물론(materialism)이다.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실재의 전부이며, 물질의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해석체계다. 유물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할 때 유물론적 환원주의(materialistic reductionism)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유물론적 환원주의란 인간의 정신활동과 그의 산물인 윤리, 도덕, 종교, 법, 예술 등과 같은 문화 활동을 물질들 간의 상관작용에서 발견해낸 원리들을 가지고 해명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라는 사회의 하부구조로써 종교, 도덕, 법, 예술 등과 같은 사회의 상부구조를 해명하고자 했던 마르크스주의나, 인간의 심리 기제에 나타나는 원리로 도덕과 종교 활동을 설명하고자 했던 심리주의나, 유전자로부터 발견해낸 원리들로써 도덕과 종교를 설명하고자 했던 유전자 결정론 등이 모두 유물론적 환원주의의 구체화된 형태들이다.

유물론은 필연적으로 가치관에 있어서는 공리주의

로 나아간다. 초월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가치는 물질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초월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초월적 규범 지도가 실종되었다는 뜻이다. 이 상태에서 복수의 물질적 가치가 충돌을 일으킨다면 어떤 가치가 행위자에게 더 많은 물질적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따라, 곧 공리주의적 척도에 따라서 가치선택을 하게 된다.

경계선상의 상황에 처한 인간

이런 양상은 생명윤리 영역에서 적나라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명윤리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경계선상의 상황(the borderline situations)에 처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간들의 행동이다. 경계선상의 상황이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구비하지 못한 채 외부의 조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뜻한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듯, 인간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과 종결되는 시점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인간은 신체적으로 극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

적으로도 자기 의사를 주체적으로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두 시기에 인간 생명의 존폐여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좌우된다. 따라서 이 두 시기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가치관과 행동이 생명윤리의 윤리적 반성 대상이 된다.

경계선상에 처한 인간은 생산능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힘겨울 정도의 많은 경제적 지원과 정신적 부담,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생명을 다루는 자들이 유물론



이나 공리주의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때, 과연 이런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품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생명의 시작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들을 다루고, 생명의 종결점 관련 의문은 다음 호에서 다루겠다.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들의 의문들

생명의 시작점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유물

론적 공리주의자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은 다음과 같다.

a. 임신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으나, 아이를 얻는 기쁨 보다는 낳아서 키우는 데 따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아이를 낙태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b. 피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즐겼으나 아이를 잉태하는 데 뒤따르는 어려움을 감당할 마음이 없을 때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여 아이를 제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c. 불임 때문에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시험관 아기 갖기를 시도할 수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배아를 파괴하는 과정이 수반되는데, 아기를 얻어서 소원을 이룰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배아파괴 과정을 거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d.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의 세포는 모두 줄기세포이며, 줄기세포는 난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할지도 모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류를 괴롭히는 난치병을 치료한다는 실용적인 효과를 얻기만 한다면 배아파괴를 감수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들은 이같은 질문들을 제시하면서 시작점에 있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에 동의한다.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희생의 대상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러나 유물론적 공리주의자들이 이 일을 추진할 때 양심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들이 물질적 행복을 얻는 대가로 희생시킬 대상이 바로 살아 있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그 목적이 물질의 보상이나 난치병 치료든, 아이 얻는 것이든 간에 말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희생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한다. 사실상 모두 궤변들이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인간생명을 죽이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과 같다. 대내외로 드러내 밝힘으로써 대중들을 설득시키고자 안간힘 쓰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논리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다. a. 종차별주의(specism)는 도덕적 판단능력, 합리적 사유능력, 자기의사표현능력 등과 같은 정상적인 정신활동의 증거가 나타나야 비로소 인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론의 문제는 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시점이 각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정확한 시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b. 출생시절은 태아가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에야 비로소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생물학적으로 출생 직후와 직전을 구별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c. 뇌파설은 뇌파가 감지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인데, 사실상 뇌의 활동은 뇌파가 감지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뇌파 감지는 뇌의 활동이 그 이전보다 약간 더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할 뿐, 뇌

파감지시점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보아야 할 생물학적인 이유는 없다. d. 원시선설은 수정이 이루어진 후 14일경이 되면 척추선인 원시선이 거무스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시선은 이미 수정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성장하는 것으로서 14일경에는 다만 조금 단단해지는 정도뿐이며, 게다가 원시선은 며칠 지나면 사라진다. 따라서 원시선 출현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이론들은 물질적 행복을 얻기 위해 신생아나 태아, 배아를 희생시키는 비윤리적 관행을 합리화하려는 궤변일 뿐이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

그러면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이 시점이 올바르게 설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철저한 불연속점에 있다. 다시 말해 이 시점 전에는 살아 있는 인간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이 시점 이후부터는 살아 있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합할까? 바로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이는 생물학이나 유전학적으로도, 성경이나 교회사적으로도 일치한다. 이른바 수정란설은 기독교생명윤리에 있어서는 사도신경적인 전제다. a. 생물학적으로 한 인간의 신체적 생명이 가능하려면 자기복제와 단백질 생성이 있어야 한다. 이 두 작용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며 전에는 이 두 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b. 유전학적으로 한 인간의 유전

인간이 생명을 다루는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탐구하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자 구조는 수정 전에는 천문학적으로 놀랍고 엄청난 변화를 거친다. 유전자변환 및 부계와 모계에서 온 염색체의 840만가지 가능한 조합 등 말이다. 그러나 수정이 이뤄지는 순간 확정되며, 그 후에는 죽는 날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c. 성경에서는 잉태의 시점부터 배속의 아기를 영혼을 가진 인격적 주체로 호칭하고 있다. 잉태는 성교를 가지는 시점을 뜻하며, 이는 수정이 이뤄지는 때보다 더 이른 시점이 된다. 성경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 바로 직전부터 살아 있는 인간으로 봄으로써 수정란설을 견고하게 뒷받침한다. d. 교회사적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변적 생물학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문헌, 토마스 아퀴나스 등은 남아의 경우 잉태 후 40일, 여아의 경우 잉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영혼이 주입되므로 이 시점부터 살아 있는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루터, 칼빈 등과 같이 성경에 충실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잉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았다. 이 견해는 후일 정자와 난자가 발견되는 등 생물학적 지식이 발전하면서 수정란설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이론으로 정착되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 카톨릭교도 영혼의 시점의 문제에 관해서만은 아퀴나스의 입장을 비판하고 수정란설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

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목숨은 천하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보다 높은 절대가치이다. 따라서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배아(수정후 8주까지의 아기)와 태아(8주 이후의 아기)를 파괴하는 관행 곧 낙태, 사후피임약 복용, 시험관 아기시술, 배아줄기세포추출 등은 모두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이는 악행이다. 유물론적인 공리주의 가치가 인간의 목숨의 절대가치를 상쇄시켜서는 안 된다.



이상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교수,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산하 기독교윤리연구소장이며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